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85호 [루게 제 24963호] 주체 104(2015)년 7월 4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과학기술전당건설을 적극 지원한 군인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기술전당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군인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과학기술전당을 전진과학기술인재화실현의 위력한 거점으로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할 열의안고 인민보안부 군관 백수향은 숙색개발전투에서 혁명군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가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

로란봉구역인민보안서 군관 백해성도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열기로 세계를 뒤흔드는 전투정신으로 달려가 경제선동도 하고 후방물자도 안겨주면서 군인건설자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었다.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실천으로 받들어갈 마음안고 조선의학회회 철도성위원회 서기장 허철은 건설장에서 현장의로부사활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많은 설비와 자재, 물자들을 지원하여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평양시인민위원회 건물관리국 산하단위 부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안은 군인들과 근로자들은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계속 지원하여 조국의 부강변영에 이바지해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적도기네민주당 전국리사회에 축전을 보내였다

발라보

적도기네민주당 전국리사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적도기네민주당창건 29돐에 즈음하여 귀 당 전국리사회와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의 강화발전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귀 당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104(2015)년 7월 3일 평양

모두다 김정은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떨쳐나서자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에 애국의 마음 바쳐간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전국각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힘있게 지원

당의 높은 뜻을 심장에 새긴 전국각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계속 성심성의로 지원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은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변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4월 뚝고 협한 길을 헤치며 이곳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은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전당적, 전국적, 전사회의 발전소건설을 적극 지원해달라 당부하시였다.

도, 시, 군당위원회들과 성, 중앙기관들, 각지의 대학, 공장, 기업소들의 당조직들에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 지원사업을 혁명의 성지, 백두대지를 더욱 빛내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하고 지원의 불길을 계속 찾아가 지펴올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청년들에게 대한 불같은 사랑과 믿음이 묻어나는 향토당위원회 책임일군

은 즉시 도당과 시, 군당위원회들에서 백두산선군청년동맹대원들에게 대한 지원사업을 더욱 용이하게 벌리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지난 6월 7일에는 직접 백담청년역에서 세멘트상하차전투를 벌리고있는 향토당위원회 청년동맹대원들을 찾아 그 많은 지원물자를 넘겨주고 그들의 로동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해 주었다.

황해북도의 도, 시, 군당비서들이 지난 6월 10일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성의가 담긴 후방물자들과 로동보호물자를 안고 백두대지의 청년동맹대원들을 찾았다. 그들은 황해북도 청년동맹대원들에게 지원물자들을 안겨주고 고향집소식들도 전해주면서 부모형제들과 고향사람들의 기대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조선속도창조에 앞장서서 달려나가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성의껏 지원물자들을 안겨준것을 비롯하여 평양시 중구역, 대동강구역, 내성대구역, 평천구역, 선

교구역, 량양구역당위원회와 대흥단군, 삼수군, 김형직군의 일군들도 자신들이 앞장서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안고와 들끓는 건설현장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과시하고있는 청년동맹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외무성의 책임일군들은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에 대한 지원물자를 보내주어 청년동맹대원들의 양양된 열의를 북돋아주었다. 황해남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뚜렷한 계획밑에 근거있게 내밀어 많은 지원물자들을 보내줌으로써 황해남도청년 1호연계우안 공작부서 공작리치기를 앞당겨 끝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문화성과 남포시 향구역, 연산군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청년동맹원들의 애국충정의 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발전소건설장에 보내주어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이밖에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수도건설위원회와 평양시 중구역, 보통강구역, 사동구역 등 후방물자들 안

을 비롯한 도의 협동법들에서 화선식경제선동을 적극 벌리었다.

도의 시, 군의 협동농장들에 달려나간 도예술선진대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청년동맹들과 지원자들을 김배기를 비롯한 당면한 동등조건투쟁으로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도의 시, 군기동예술훈대들과 녀맹기동예술훈대들에서도 김배기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는 협동법들에서 화선식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면서 대중을 당면한 영웅전투에 불려넣고있다.

신의주시당위원회에서는 당 일군들로 무어진 경제선동대들의 협동농장들에 파견하여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의 전투적사기를 부추 높여주었다.

특기기자 송 창 운

양의국어대학 학생 김대봉, 남포시 향구역 향구교중학교 학생 리미령, 라선시 선봉지구 선봉초급중학교 학생 김진경을 비롯한 전국각지의 대학, 전문학교, 고급 및 초급중학교, 소학교의 청소년학생들도 애국주의의 마음을 바쳐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보내줌으로써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모든 나라 인민들의 뜨거운 지원속에 발전소건제가 속구치고있다.

화선식경제선동활동 활발

평안북도의 창작가, 예술인들과 기동에술선동대원들

에 총집중시켜 화선식경제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자 조직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도예술선에서는 모든 역량을 모내기와 김배기에 총동원하며 가물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데 대한 당의 전투적소조를 높이 받고있다. 예술인들은 창작가, 예술인들과 다섯개의 소련대를 맺고 정책적대가 있고 시대정신이 내재하는 경제선동종목들을 준비하고있다.

1소련대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창작군과 작곡군, 정주시와 파산군을 비롯한 9개의 시, 군들에 나가 연 62차례 걸쳐 3

만 8천여명의 군중들을 대상으로 예술공연과 경제선동을 진행하여 그들을 당면한 영웅전투에 동원하고 있다.

정주시, 룡천군, 철산군, 선천군과 순천군을 비롯한 여러 시, 군들에 달려나간 2, 3소련대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수많은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속에서 경제선동을 벌려 그들이 영웅전투를 힘있게 다그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이들은 146차례 걸쳐 5만여명의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속에서 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려 이르는 곳마다에서 혁명적광명과 대고조의 승결이 차넘치게 하였다.

4, 5소련대의 창작가, 예술인들도 신의주시 인민협동농장

각종 전통기생산성과 계속 확대

성천강 전기공장에서

기를 생산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공장의 로동계급은 도당위원회와 기계공업성의 지도방조밑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바람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면서 생산성향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직장들사이에서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가운데 일터마다에서는 매일 계획이 120%이상 해제되는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생산의 선행공정을 담당한 주물장치의 용해, 조형, 사략, 목공작업반의 로동자들과 소재장치의 연선, 단조, 도포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로의 집체적지혜를 합쳐가며 간진 일공세를 발휘해나

고있다. 그들은 기동기 높이면서 교대가 교대를 돕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한 제품을 다음 공정들에 넘겨주고있다. 가공작업과 프레스작업, 조립작업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간직하게 하고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각종 협동법들을 질적으로 만들어 전통기생산을 늘이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공무로력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설비대수와 수리를 앞질러가며 기동성있게 진행하여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할 수 있게 하고있다.

자랑한 로력적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추진전에 들어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투쟁에 의해 생산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특기기자 박 동 석

수령님 걸으신 농장길, 포전길 못 잊습니다



태양의 력사 줄기차게 흐르는 7월이다. 하늘을 보아도, 대지를 보아도 가슴가득 우리 수령님 생각이 미쳐오고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가 끝없이 울려 퍼지는 7월의 조국강산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혁명가적품모에 있어서나 인간적품모에 있어서나 누구도 견줄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한 우리 아버기를 사무치게 그리며 천만군민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오늘도 당보에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문헌을 정중히 모시였다.

남알향기 구수하게 풍겨오는 포전에서 인민의 행복을 그려보시는듯, 무궁도록 부강변영할 우리 조국의 앞날을 축복해주시는듯 환히 웃으시는 아버이수령님!

위대한 태양의 모습 우러르듯 인민의 마음을 파고드는 생각, 그것은 농사일을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며 아버이수령님께서 평생도록 걷고걸으신 농장길, 포전길이다.

물노니, 금파만경이 물결치는 드넓은 벌로부터 감자꽃바다 설레이는 백두대지에 이르기까지 우리 수령님의 자욱이 어려있지 않은 포전이 과연 이 하늘아래 그 어디에 있었는가.

주제 43(1954)년 4월 15일, 전후 처음으로 밭을 일구는 날에도 아버이수령님께서 포전길에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였다. 이른아침 중화국 삼정 농업협동조합(당시)을 찾으신 아버이수령님께서 아직은 이슬이 걷히지 않은 포전길을 걸으시며 이곳 사람들을 농사를 잘 짓고 잘살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날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이따마음에서 기계로 밭을 심는다는것을 아시고는 차도 못 다니는 험한 길을 걸으시며 그곳까지 가서 작업모습을 보여주시였다. 썩티가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곳도 찾으신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일꾼들이 간헐히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일제놈들과 싸울 때에는 이보다 더한데도 다녔다고 하시며 험한 습지를 일일이 밟아보시면서 양어장자리도 잡아주시였다.

그날 저녁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오늘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생일을 쇠었다고, 휴식이란 먹고 노는것이 아니라고, 나라일이 잘되어 마음이 즐겁고 기분이 좋으면 그것이 곧 휴식이라고 하시며 더없는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 있어서 탄생일도 온 나라 포전을 돌보시는 헌신의 하루였으니 눈은 날, 비내리는 날을 가림없이 한평생 우리 수령님 농장별에 세기신 하얀색 자욱들을 이어 다 헤아릴수 있오.

어느해의 8월 15일에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사동구역 장천협동농장(당시)을 찾으시였다.

온 나라 인민들이 즐기는 명절날에도 농장을 찾으시고 심한 무더위속에서 포전길을 걸으시는 아버이수령님.

그이를 격정속에 우러르며 농장의 일꾼은 아버이수령님, 오늘도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시는 기쁜 날이어서 온 나라가 다 즐겁게 쉬는데... 명절 하루만이라도 휴식하시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간절히 말씀 올리였다.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포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65(1976)년 9월

그의 말에서 인민의 절절한 소원을 헤아리시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는 이렇게 협동농장의 포전길을 걷는것을 휴식으로 여기고있다고 하시며 포전길을 걷고도 걸으시였다.

격정없는 안아볼수 없는 이런 감동같은 사연들로 엮어진것이 바로 우리 수령님 걸으신 농장길, 포전길이다.

세계기슭의 온천밭을 찾으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무려 백십여개의 현지어조를 하시며 수만리의 포전길을 걸으시는데 가슴뜨거운 이야기와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포전길을 걸으시며 몸소 과학적인 화학비료주 기방법이며 논밭에 물을 대는 방법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는 사연을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과 연안군 풍천협동농장은 뜨겁게 전하고있다.

평양시외의 한 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농장의 물문제를 풀어주시려 진논개비 내리는 한밤중에 왜불을 켜드리고 저수지 자리까지 잡아주시는 아버이수령님께서 나는 동무들이 흰쌀밥만 먹을수 있다면 이런 논밭을 얼마든지 맛냈다고 하시던 말씀 잊지 못한다.

어떻게 하나 농사문제를 푸시려, 그래서 이 땅의 천만자식들의 밥상을 더욱 푸듯하게 해주시려고 여러가지 작물들을 손수 심어주시며 농작물들의 생생학적특성도

밝히고 그에 따르는 영농방법도 하나하나 찾아내신 우리 수령님이시디.

한평생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면서 언제나 농민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소박한 농사경험도 귀중히 들어주시고 세계의 농업실태도 친히 연구분석하시며 불멸의 대강주체농법을 창시하여주시는 아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와 업적을 못 잊어 오늘도 사회주의대지는 설레이고있다.

북편의 백두삼천리벌로부터 분계연선의 연백에 이르러가시던 온 나라 포전들에 울리는 농기계들의 동음은 기계화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는 아버이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을 길이 전하고있다.

이 땅에 전설의 천리마를 불러오시여 눈부신 기적과 전변의 새 역사를 장쾌히 엮어가시던 그 날에도 우리 수령님께서는 멀리 북방의 한 농장에 헌신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농장의 농사정형을 일일이 알아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 후조건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하였다는것을 아시고 평상모를 내는 기일이 늦었는데 오늘날로 전모를 쳐서 비행기로 평상모를 실어다주자고 하시며 비행기까지 띄워주시는 전설같은 사랑의 화륜을 펼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나라의 평범한 농장의 명에농장원이 되여주시는 이야기는 또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것인가. 한평생 농장길, 포전길을 걸으신 우리 수령님을 생각할 때면 인민의 가슴속에서는 언제나 노래 《포전길 걸을 때면》의 절절한 선율이 울린다. 그것은 그대로 위대한 수령님 걸으시던 농장길, 포전길을 삼가 따르는 온 나라의 농업근로자와 인민들의 심정이다.

... 랍스런 이삭들이 고개를 숙일 때면 귀전에 울려오는 수령님 그 말씀 들뜬에 넘쳐나는 구수한 난알향기에 평생시름이 풀린다 하시던 그 말씀 못 잊습 니다

...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온 나라의 농장 길, 포전길을 걸으신 아버이수령님께서 모든 인민들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 하자는것이 나의 구상이며 우리 인민의 세계적인 념원입니다라고 하시던 절절한 말씀이 들려온다.

아버이수령님께서 그는 그 념원 안으시고 옛날 왕족들만 먹던 쌀로 지은 밥을 인민의 식탁위에 올려주시고 그 이름도 입말대신 흰쌀로 고치도록 하시였다.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는데서 먹는 문제를 푸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늘 강조하시며 의식주라는 말을 식의주로 고치도록 하시고 쌀은 곧 사회주의이다라는 구호도 제시하신분이 우리 수령님이시다.

승고한 그 뜻을 안으시고 아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온 나라의 농장별에 헌신의 자욱들을 련련히 새기시였다.

한평생 농장길, 포전길을 걸으시며 이 땅 위에 옥백백과 무르익는 풍요로운 가을을 펼쳐주시는 아버이수령님.

오늘도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아버이수령님을 우러르는 나라의 농업근로자와 인민들은 심장으로 웅변다.

만봉년노래속에 당의 뜻 꽃피워가며 기어 이 위대한 수령님의 유혼 지켜가렵니다!

지난해 2월초 사회주의농촌경제발표 50회를 맞으며 전국농업부문보조장대회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회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 《사회주의농촌경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를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서한에서 우리 나라 농촌에서 일어난 력사적사변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농촌경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농촌문제해결의 불멸의 대강이기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빛나는 모범을 창조할수 있다고 굳게 믿어 버린다고 하시였다.

또한본의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따라 우리 수령님께서 평생토록 사랑하시고 정을 기울이신 사회주의대지에 세세년년 옥백백과 무르익는 풍요로운 가을만 펼쳐주시였다!

바로 이것이 오늘도 농장별에 계시는 아버이수령님을 우러러 온 나라의 농업근로자와 천만군민이 다시금 굳게 다지는 불같은 맹세이다.

본사기자 김 인 선

농민들이 받아안은 하늘같은 은덕

사회주의협동체 그 어디에나 우리 농민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안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걷고걸으신 현지도의 자욱 자욱이 력력히 어려있어 오늘날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 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영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승고한 한생이었다.》

주제 35(1946)년 3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농촌을 찾으시며 농민들을 진정한 행복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던 이야기를 잊을수 없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민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 하고 토지개혁에 대한 그들의 소감을 들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마을 로 인들은 제땅에서 농사를 지어보았으면 하는 평생소원이 풀렸다고 자기들의 절절한 심정을 담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였다.

물 잊을 그날에 기쁨의 미소를 짓으시고 자신께서 여러분에게 땅을 준게 아니라, 땅을 갈고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내놓고 어떤 사람이 땅의 주인이 되었는가, 땅은

발같이하는 여러 농민들의것이 라고 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웃음이 오늘도 사회주의협동체 들에 풀없이 울리고있다.

우리 농민들은 이렇게 헤방된 조국땅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베어주시는 크나큰 은덕에 의하여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위인들이 있었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언제나 평범한 농업근로자와 함께 계시며 주실수 있는 사랑을 다 들려주시는 인민의 아버이가 없었다.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 문화농촌,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이 승고한 리상과 목표를 자신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시고 그 실천을 위해 농장별, 농촌마을들을 쉬임없이 찾다왔으시였다.

현지도의 길에서 갈사는 농사는 살림이 붙어있는 모습이 기쁘시어 자주 찾아가시었고 현정이 어려우 농촌의 늘 마음에 걸려오기 때문에 들리시며 살림살이를 의

해하신 아버이수령님이시였다.

농민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리시고 그들을 하나하나 농침없이 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다심하신 사랑은 전하는 이야기들이 그 얼마나 모른다.

흰쌀구경을 못한다는 고장에 찾오시여 친히 저수지자리도 잡아주시고 논농사의 방도를 가르쳐주시여 대대로 벼농사가 안되던 땅에서 흰쌀이 나오도록 해주신 이야기, 머리위에 입을 이고 다니는것이 힘들다는 한 녀성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기계로 농사짓고싶어하는 농민들의 간절한 소망으로 받아안으시고 기계생산 자물들을 찾아가신 사연, 수도로써 터 밀려 멀어진 평범한 한 농촌 마을의 건설을 발기하시고 몸소 건설주가 되여주시는 이야기...

어디나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어느 한 협동농장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모자이크벽화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풍년을 농장별을 만끽하게 바라보시며 만시름이 풀린듯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이수령님.

얼마나 농사일을 두고 마음쓰시였으면 가을바람에 설레이는 황금이삭들을 보시며 그리도 환하게 웃으시려.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시나 그의 모습을 오레동안 잊혀는 일군이 어려와 신뜻 발걸음을 땀수가 없었다.

농업과학자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밭보리시험포전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이께서 몸소 가꾸어오신 여가까지 밭보리이삭들이 환상스럽게 익어가고있었다. 융중하게 전문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시험포전에서조차 생각 못할 훌륭한 작황앞에서 그들은 놀라움과 경관을 금할수 없었다.

《정녕 우리 수령님은 이민위천을 평생의 지름으로,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신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이이십니까.》

수십년전의 어느날 몇 명의 농업과학자들은 아버이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충분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흠뻑은 작업복을 미처 갈아입을 사이도 없이 그들이 차를 타고 간 곳은 뜻밖에도 아버이수령님의 저택이었다.

아버이수령님의 저택정원에 들어서면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앞에서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언제나 농사일을 두고 마음쓰 오신 아버이수령님께서만이 한겨울의 추위속에서도 풍요로운 가을을 내다보시며 실도랑을 생명수로 전면시켜주시였다.

본사기자 백 영 미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들 속에 들어가는것이 자신에게서 휴식인데 무엇보다도 온갖 여가치 소중하게 보았다고 하시며 끝내 그 뜻을 매우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저기마다 갖가지 밭보리품종들을 심으시고 오랜 세월 그 작물들의 생육과정을 몸소 관찰하시며 가꾸어오신것이었다.

저택의 정원을 시험포전으로 만드신고 작물들을 직접 가꾸어 보시며 새로운 농사방법의 본보기를 창조하신 우리 수령님.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평도자도 많다. 하지만 한 나라의 수령이 저택정원에 화려한 판상 융화초원이 아니라 정직한 농업과학시험장을 꾸리고 온 나라의 논과 밭, 산과 들에 심을 작물과 여러가지 식물들을 직접 가꾸어주시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을 위해 로고를 바친적이 있었는가.

부지런한 실농군의 심정으로 저택시험포전에서 농작물들을 손수 가꾸신 경험을 들려주시고 하시며 온 나라 농사일을 돌보시던 우리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인민모두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저택시험포전, 그것은 단순한 농장별을 시험해보는 포전이 아니었다. 이 땅위에 과학농사의 새시대를 펼쳐준 주체농법의 발전지였던 온 나라를 오목백백과 무르익는 인민의 락원으 전면시켜주시는 한평생의 위대한 농장별의 고귀한 결정체였다.

하기에 온 나라 인민들모두가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간절해 지는 아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속에 저택시험포전을 메우고 여기에다 작물들을 심자고 하시였다.

일꾼들은 아버이수령님께서 잠시라도 편히 쉬실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놓은것인데 그 못만은 그냥 놔두자고 간절히 말씀드리였다.

강 원 남

뜨거운 추억 불러오는 내 나라의 사계절

◎ 전화의 날에 뿌리신 봄씨앗

주제 41(1952)년 5월 어느날, 전쟁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치렬한 격전이 벌어지고있던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원화리를 찾으시어 어떻게 달았는가.

소져리판과 품앗이반을 못고서도 두루번 농사를 짓는 원화리 농민들에게 참 좋은 일을 물이내고 승리를 불러온 씨앗이었고 이 나라 농촌의 위화환 패일을 약속하는 행복의 씨앗이였다.

◎ 8월의 폭양속에서

수십년전의 8월말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느 한 농촌마을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기쁨으로 한껏 마음이 부풀어오른 관리원장인이 그에게 뒤산봉우리를 가리켜드리며 저 산에 올라 가면 파수원과 포전이 잘 보인다

◎ 그날 이쪽의 기온은 32℃를 기록하고있었다.

하지만 온몸을 땀으로 흠뻑 적시며 산에 오르시며 그림자아름다운 마을을 찾으시시는 우리 수령님의

◎ 청산벌의 가을날에

아버이수령님께서 어느해 가을날 풍년든 청산벌을 찾으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온 수십년동안 농사를 지도해본데 의하면 봄에 온도가 낮고 가을다가 가을에 와서 장마가 길어지고 일기가 좋아지면 수확하고 추울라가는 데 그런 해에는 우박피해를 예견해야 한다고, 이제부터라도 비가 익는쪽쪽 빨리 가을을 하려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 한겨울에 찾아주신 생명수

대소한의 맹창 추위가 계속되던 어느해 1월이였다. 어느 한 농장을 돌아보시던

◎ 안팎에는 기쁨의 미소가 어려 있었다.

이런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무수히 새겨져있어 무심히 볼수 없는 내 나라의 농촌현이다.

◎ 그레로부터 얼마후 이곳에서

그레로부터 얼마후 이곳에서는 먹장구름이 밀려들고 주먹같은 우박이 줄곧 쏟아져내렸다. 농장원들모두가 탈곡장에 높이 치솟아오른 벼단거리를 바라보며 환성을 올리였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다 알수 없었던가. 가을의 조화까지 내다보시는 아버이수령님의 천리해안의 예지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

◎ 아버이수령님께서

아버이수령님께서 폴짝이 이르시어 문득 걸음을 멈추시며 나 삽과 곡괭이를 가져오라고

◎ 이땅에 전설의 천리마를 불러오시여

눈부신 기적과 전변의 새 역사를 장쾌히 엮어가시던 그 날에도 우리 수령님께서는 멀리 북방의 한 농장에 헌신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농장의 농사정형을 일일이 알아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 후조건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하였다는것을 아시고 평상모를 내는 기일이 늦었는데 오늘날로 전모를 쳐서 비행기로 평상모를 실어다주자고 하시며 비행기까지 띄워주시는 전설같은 사랑의 화륜을 펼치시였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나라의 평범한 농장의 명에농장원이 되여주시는 이야기는 또

◎ 8월의 폭양속에서

수십년전의 8월말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느 한 농촌마을을 찾으시였다.

◎ 한겨울에 찾아주신 생명수

대소한의 맹창 추위가 계속되던 어느해 1월이였다. 어느 한 농장을 돌아보시던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며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과학 기술 전 당 건설 장 에서

백두의 넓과 기상으로 창조 하리

부 재생 산 지 에서 의 약 속

풍치수려한 옥색지구에서 거창한 창조 의 획성이 울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낙달 남짓한 날이 흘렀다.

이 나날 옥색지구의 과학기술 전당건설장에서 어제날의 모습은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게 되었다.

섬의 환가운데에 과학기술전당플로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수능능력이 온 속속건물플로가 선공조건의 푸른 하늘가를 향해 키를 솟구쳤다.

충성의 다리과 옥색을 연결하는 다리건설장에서 보통때라던 상상조차 하지 못할 천도개벽이 일어나 흐르던 옥색인입다리들이 여포한 자태를 완연히 드러낸것과 건설장에 펼쳐진 놀라운 현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를 성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건설부에서의 혁신의 봉화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박의 불길로 새차게 타번지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이런 투철한 신념을 지닌 영웅적인민군장병들은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라는 불같은 열념으로 심장을 끓이며 과학기술전당건설의 분과 조를 편이온 기적과 위훈창조의 순간순간으로 자랑스럽게 빛내었다.

지휘관도 병사도 한도습이 되어 모든 공사를 뚝뚝으로, 전격적으로 추진한 이들에 의해 옥색전역에서 일어난 천도개벽은 건설장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부강한 조국의 쾌일예 대한 찬사와 용기를 배해 주었다.

과학기술전당 플로공사간에 조국정신을 빛날 자랑찬 위훈을 아로새긴 병사들은 수능능력이 온 속속건물플로공사에서 조격전의 기상을 힘있게 떨치고있다.

이들은 지금 준엄한 전화의 나날에 직사포를 고지우에 끌어 올리고 원수들을 담배기던 영웅전사들의 모습 그대로 혼혈합당송기에 의한 연속공격전을 과감히 벌여 적수군정복을 하루가 다르게 확대하는 동시에 여러 건설대상을 뚝뚝으로 추진하고있다.

과학기술전당과 속속건물플로공사에 완강한 파도식공격으로 규모가 큰 건물들의 단장

어 뻘이있게 형성한 기둥들사이의 다리보조집에서 비상히 빠른 속도를 창조함으로써 당의 부름이래던 단숨에 산도 허물고 바다도 매우는 선군시대로 통계급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백두의 넓과 기상으로 새로운 평양속도를 창조하자.

이런 자각을 안고 많은 대상공사를 다그치는 수도건설위원회와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아래 여러 단위 일군들과 전투원들, 속도전선능력개발원들, 비록한 모든 시공단위 전투원들, 평안단위일군들과 로동계급, 각계층 지휘자들의 불같은 애국의 열정속에 천도개벽이 일어나는 옥색전역에서 거창한 창조 의 획성이 힘차게 메아리칩으로써 완공의 날을 앞당길수 있는 돌파구는 확고히 열리었다.

풍치수려한 옥색을 과학의 섬으로 전면시공해 대한 당의 전투적소를 높이 받들고 많은 공사를 대량별, 날자별로 한치의 드림없이 무조건 수행하기 위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군인들과 건설자, 지휘자들과 애국충정의 마음에 떠날들려 옥색지구에서 새로운 평양속도창조의 열풍은 더욱 새차게 휘몰아치고있다.

신을 본받아 다리보생산에서 혁신할것을 경제선동대원들과 뜨겁게 약속하였다.

과학기술전당건설자들의 로력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한 이날의 주인공들은 평양시영화국의 류순신, 김연화 등우들이었다.

스스로 견는 원군 길

당의 웅대한 구상이 현실로 펼쳐지는 대전설전투장에 소중히 마음을 아낌없이 바치려는 생각을 그의 남다른 적극 지지해 주었다.

사실 지난 기간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성의껏 돌봐주었고 시안의 어느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자신이 당당한 중환자를 위해 많은 보약도 마린해준 안해의 마음을 잘 알고있는 김명철동우

었다.

하기에 그는 안해가 출장길에 있을 때에도 귀여운 딸 유진이와 함께 성의껏 마련한 원호품을 안고 건설장을 찾은 군인들.

이런 민들의 성의있는 원호속에 10월의 축전장을 향해 폭풍처럼 내달리는 군인건설자들의 발걸음 속도는 더더욱 빨라지고

건설장의 류다들 마치소리

리용하는 기공자들이 손색없이 수리하며 가락맞게 마치소리를 울려가는 전쟁로병!

말문이 훨씬 넓은 몸으로 창조 의 울음소리는 건설장에 사는 전쟁로병 류영길동우

는 크지 않다.

하지만 군인건설자들은 그 마치소리에서 미래를 물

리천 전승대의 뜨거운 당부름 들었고, 건설의 대박 열기를 펼쳐가는 오늘의 투쟁이 인민들에게는 기쁨을 주고 원수들에게는 무자비한 타격을 주는 또 하나의 전투라는 자각을 더욱 비삼히 새겨안으며 새로운 평양속도창조의 불길을 새차게 지켜올리고있다.

속속을 진감하는 경제선동의 북소리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완공의 날을 앞당기자는 과학기술전당건설장에 새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로 부는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있다.

중환된 자료에 의하면 중앙에 술단체의 예술인들과 각종 근로 단계 그리고 여러 교육기관의 경제선동대원들과 학생청년들이 건설장에 찾아가 공사에 참가한 군인들과 건설자들, 철도에출신 선진대 예술인들과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지인들도 공사에 참가한 군인들과 건설자들앞서 혁명적인 가요와 시가작품들 가지고 전투적인 경제선동을 진행하여 현장분위기를 한층 고조 시키고있다.

수도건설위원회 예술선진대원들은 제 4차 4월의 불 인민 예술축전이 끝난 직후부터 하루같이 건설장에 달려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격조적이고 찬란한 예술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리었다.

이들은 과학기술전당을 최전방에 훌륭히 일떠세우기 위한 거창한 창조적투쟁을 펼쳐나선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사기를 더욱 높여줄 열념을 안고 옥색전역의 건물건설장과 하부구조물 건설장, 다리건설장들에서 《가리라 백두산으로》, 《죽어도

혁명선명 버리지 말자》를 비롯한 혁명적인 노래를 포함한 박 령있는 공연들을 진행함으로써 모든 건설자들이 비약과 혁신의 불바람을 새차게 일으키도록 하고있다.

라망구역과 평천구역, 중구역과 보문구역, 동성구역 등을 비롯한 시안의 많은 구역에서도 방승선전차와 음향기계를 리용한 화선선동의 포성을 힘있게 울리었다.

라망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은 공사가 시작된 첫날부터 군인건설자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많은 생활필수품과 원로물자를 마련해 가지고 군인건설자들을 찾아가 기도에술선동활동도 힘있게 조직 전개하고있다.

평양시안의 각급 나맹조직들과 힘있는 지원사업과 함께 너메기운동에술선동활동을 활발히 벌여 건설장에서 새로운 기적창조의 열풍이 새차게 휘몰아 치게 하였고.

과학기술전당건설장에서 갈수록 새차게 울려 퍼지는 화선시경선동의 힘찬 북소리는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군인들과 건설자들을 새로운 평양속도창조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또 하나의 원동력으로 되고

현 지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시내적요구와 건설대상의 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공법들을 창안하고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며 최심층 공법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합니다.》

단숨에의 기상이 새차게 내치는 여기는 충성의 다리과 옥색을 연결하는 3개의 다리에서 제일 긴 인입다리건설장이다.

지금 특혜운성이래 여러 단위 전투원들이 진행하는 다리상판 조립이 한창이다.

무수한 붉은기둥들과 다리기둥들 위에 이미 조립된 상판부재들, 호각사이에 맞추어 기둥을 휘둘러 가며 협공작업에 여념이 없는 자동차기둥들...

이곳 건설자들이 시공해야 할 다리걸이는 민첩단위들에 비해 거의 3배에 달한다. 하지만 아무리 규모가 큰 건설대상도 문제 없었다는 의지가 보조를 움직여 해나가는 연공들의 얼굴마다에 령력히 비쳐있다.

《당에서 중시하는 옥색지구의 모든 건설물을 백점, 만점짜리로 일떠세우려는것이 우리 전투원들의 한결같은 의지입니다.》

현장지휘관인 리경진동우가

하는 말이다.

우리앞에서는 지금 자동차기둥과 충성의 다리 상부물과 가까운 기둥에서부터 다리를 물고 서서히 올린다.

현장을 감동깊이 바라보는 우리에게 곁에 선 일군이 저렇듯 다리보조집이 완성이 추진되는 밑바탕에 숨겨진 사연을 웃으며 이야기하였다. 알고보니 성적으로 지상조립공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일 목표물에

공사에 참가한 전투원들은 그들대로 기둥공사과정에 철근과 휘틀조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공법을 적용하여 공사기일을 여덟달이나 앞당겼다고 한다.

그의 말을 듣는 사이에도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는 현장의 속결은 더

속 새차게 고조된다.

충성의 다리를 오가던 사람들이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설장을 내려다보며 열혈연방 감탄을 금치 못했다.

시간마다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는 건설자들이 기다란 마치마 보조를 끝냄으로써 또 한구간의 다리상판공사가 완성된다.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질풍같이 내달릴때 대한 당의 전투적소를 높이 받들고 이들이 비삼한 창조정신을 발휘하며 형성하는 새 다리의 모습이 무궁모이지 않는다.

그렇다. 이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애국충정의 불길이 그대로 창조 의 혁신의 불바람이 되어 충성의 다리과 옥색을 연결하는 인입다리건설장들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과 위문전문을 보내었다

민 스크

벨라루씨 공화국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각하

나는 벨라루씨 공화국 국경일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이 건강할것과 당신의 명도날에 귀국정부와 인민이 나라의 진보와 번영을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체104(2015)년 7월 3일 평양

김영남 에집트아랍공화국 대통령

아브들 파라흐 알 씨씨 각하

나는 최근 에집트검사총장이 테로분자들에 의해 희생되고 시나이지역에서 일어난 무장테로행위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불행한 소식을 접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피해자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시합니다.

온갖 형태의 테로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며 우리는 귀국에서 일어난 이번 테로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테로를 반대하고 나라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하고있는 당신과 그리고 친선적인 에집트정부와 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있을것이며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사회정치적안정을 이룩하며 발전되고 번영하는 에집트를 건설하기 위한 당신과 그리고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의 노력에서 보다 큰 성과를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체104(2015)년 7월 3일 평양

박봉주 총리

황해북도 농업부문 사업 현지료해

박봉주총리가 황해북도 농업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총리는 곡산군 평양협동농장, 평양수지, 신곡지구수와 신계군 왕당2호지구공사장을 돌아보면서 농작물배치관리실례, 물확보, 저수구조물의 경



박봉주총리 국토허경보호성 중앙양묘장 현지료해

배천군 금산리에서

먼동이 떠올름이다. 배천군 금산협동농장 제11 작업반 반장 조영진동우는 이른 새벽 샴을 찾아오고 집을 나섰 다. 지난해 잠을 설치고 그의 기분은 좋지 않았다.

사연인 줄 이제 은 농장직인 영농전투 1단계 사회주의경쟁총화때문이었다. 작업반은 물보장대책을 제때에 따라세우지 못함으로 경쟁총화에서 다른 작업반들 보다 뒤졌다. 다음단계전투를 생각하며 눈으로 나가던 그는 문득 2분조전에서 결음을 멈추었다.

농장반의 요구를 깨치며 사람들이 불비고있었다. (이 새벽에 누가 벌써?) 포전가이로 다가간 조영진동우는 더욱 놀랐다.

포전주변에 붉은기둥과 구호관, 이동식속보판들이 정신이 반짝 들게 세워져있었지만, 모를산으로 전진시키고 조종이 좋은 나무모들 을 더 많이 생산보 장할때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첫 새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당일군들이 누구보다도 새벽을 먼저 밟고 새벽공기를 맡으며 일떠세우는 건이 무슨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 이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애국충정의 불길이 그대로 창조 의 혁신의 불바람이 되어 충성의 다리과 옥색을 연결하는 인입다리건설장들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해주뜨락토르부속품공장

일군들은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꾼이 되는 뜻있는 율해에 뜨락토르부속품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혁명적으로 짜고있었다.

특히 일군들은 생산장성의 가장 큰 예비가 기술혁신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가고 있다. 로동자,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는 일군들의 진취적인 일본새로 하여 소재생산을 늘일수 있는 용해설비가 새로 마련되었고 추강을 자체로 생산할수 있는 기술적문제들이 해결되었다.

대중의 비삼히 양양된 열의에 맞게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소재생산에 령향을 집중하고 로동자들과 교차생산자격을 짜고 작업에 임하며다시 혁신의 동음이 높이 울리게 하고있다.

주장, 단조직장의 로동자들은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집중용해, 집중단조방식이 주를뛰며 단조를 가공에 확고히 앞세워나가고있다.

1, 2가공직장의 로동자들도 생산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기계마다 만부하의 동을높이 모든 부속품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가공해내고있다.

혁신의 불바람은 유색작업반에서도 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생산에서 편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를 발동하여 수천도가니에 의한 유색금속합방을 받아들이어 지난 5월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작업반원들은 그기세를 늦추지 않고 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다른 직장, 작업반들에서도 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생산에서 편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을 마련하신 절세위인의 불멸의 업적 길이 빛나리

조국통일 3대원칙의 영원한 생명력

지금 온 겨레는 역사적인 7.4 공동성명 발표 43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에 일대 사변으로 아로새겨진 7.4 공동성명의 발표는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자주통일사상과 애국애족의 지고한 결론이다.

지난 세기 70년대 초 겨레의 절절한 통일열원과 격변하는 내외정세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북남고위급회담을 마련하시어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북남공동성명을 통하여 내외에 걸쳐서 친명하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토착하여 진행되는 새로운 전략적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도 달라질 수 있어도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입장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민족자주의 힘으로 풀어내갈 수 있는 근본원칙과 근본방도를 밝힌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자주적립장은 강조하는 것은 조국통일 투쟁에서 나서는 가장 선차적인 문제이다. 조국통일은 그 본성적으로부터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침략적인 대조선비밀첩약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은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나라를 통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분별의 장본인이자 통일의 방해꾼인 외세에 의존한다면 우리 민족은 언제 가도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6.15 통일시대는 우리 민족이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며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용변으로 실증해주었다.

자주의 원칙이야말로 통일문제해결에 있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불변의 근본원칙이다.

나라의 통일은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평화통일은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북과 남에는 오래동안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무력행사의 조건으로 될 수 없다.

북과 남이 서로 대결하고 싸우면 전쟁의 참화를 일으키는 우리 민족이고 거기에 어부지리를 얻을 것은 외세뿐이다. 우리 민족은 외세와 그 주구들의 범죄적인 북침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하고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방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전쟁의 최근인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남아있는 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은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었으며 때때로 침략전쟁열수를 광란적으로 벌려 왔으며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들을 부추기 위해 긴장상태를 격화시켰다.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과 핵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의 북침전쟁책동을 단호규탄하고 나라의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

조국통일을 이루하기 위해서는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루하기 위한 결정적담당이다. 조국통일문제는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민족의 단합을 이루하는 문제이다.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다. 단결하면 할수록 조국통일의 주제적임은 그만큼 강해진다.

우리 민족은 대단결을 이룩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민족의 강렬한 조국애와 자주정신, 유구한 세월을 이어나오며 공고화된 민족성은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 수 있는 중요한 사상정신적원천으로 된다. 하나의 피골로 이어진 우리 겨레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민족공동의 띠목을 앞세우나면 얼마든지 대단결을 이룩할 수 있다.

참으로 7.4 공동성명을 통하여 내외에 걸쳐서 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은 우리 민족의 넘칠듯한 의지를 집대성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조국통일 3대원칙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명실공히 자주적 한길을 따라 줄기차게 전진해나갈 수 있었다.

2000년 6월에 있는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통하여 우리 민족끼리를 근본적으로 하는 6.15 공동선언이 채택되고 그로부터 7년후 10.4 선언이 채택된 것은 조국통일 3대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빛나는 성과이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7.4 공동성명의 확고한 계승이며 그 심화발전이다.

북남선언들을 판독하고 있는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라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그 근본취로 하고 있다. 북남선언들을 리행하는 과정에 남북과 대결을 거두하던 북남관계가 화해와 단합의 궤도를 타고 발전하고 그 나날에 조선반도에서 자주통일과 평화변혁의 기운이 완연했던 역사적사실들은 조국통일 3대원칙의 정당성과 그 거대한 생명력의 일대 과시로 된다.

오늘의 북남관계는 7.4 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의 기본 정신에 배치되게 극도의 파국상태에 처해있다. 남조선의 현 피뢰침체력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들을 무시하고 외세에 아합하여 반공화국대결운동에 뛰어들어

어 날뛰면서 나라의 평화와 통일위업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현실은 역사적인 7.4 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존중하지 않고 그와 어긋나게 행동하면 북남관계가 파국에 처하게 되는 것은 물론 중앙에는 전쟁이 터지게 된다는 것을 뚜렷이 리합해주고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을 7.4 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며 그에 당겨진 조국통일 3대원칙과 우리 민족끼리라는 원칙을 확고히 틀어쥐고 자주통일, 평화변혁을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야 한다.

세월이 흐르고 정세가 아무리 복잡다단해도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에는 그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

시련과 난관이 겹잡일수록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더욱 확고히 틀어쥐고 계속적인 조국통일투쟁으로 내외반동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단호히 짓부서버려야 한다.

얼마간 우리 공화국은 정부성명을 통하여 남조선당국에 북남관계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며 의사와 아합하여 버리는 《체제통일》만등과 북침전쟁열수를 걸러치우며 북남관계에 유리한 분위를 마련하면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리행을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취할것을 제안 하였다. 이것은 역사의 온갖 도전을 박차고 조국통일 3대원칙과 우리 민족끼리라는 기치높이 조국통일위업실현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 확고부동한 리상과 의지의 발현이었다.

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따라 자주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하나로 굳게 똬똬해나갈 때 북남관계개선과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리 효 진

민족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명대

남녘의 각계층 인민들이 조국통일 3대원칙을 비롯한 가장 정당한 통일방향을 제시하시어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 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있다.

《태양회》의 한 회원은 《김일성주석은 오늘도 정무보신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김일성주석님께서 낮에 밤을 이어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시며 제시하신 통일명안과 방침들은 수백권을 헤아리다 통일을 위해 하루도 편한 잠 이루지 못하시고 통일대강에 머리가 일찌기 희어지신 주석님, 애국애족의 열혈이요 역이진 그 무비의 헌신과 로고속에 7.4 남북공동성명이 탄생되었고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대강명, 고위수령반공화국강림방안이 제시되었다.

정령 김일성주석님께서 통일을 위해 누구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고, 주석님의 성스러운 애국애족의 한평생을 더듬어 보며 나는 끝없이 찾아오는 마음을 말할 때, 영생하는 주석님의 영상을 그 노래하고 있다.》

세월의 온 겨레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따라 자주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하나로 굳게 똬똬해나갈 때 북남관계개선과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리 효 진

72년 5월 3일 평양을 방문한 남측대표단을 접견하신 석상에서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민족화해방면으로 해결할 때 대한 조국통일 3대원칙을 밝혀주시었다. 그로부터 두달후인 7월 4일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세상에 발표되었다.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수십년간 격렬해오던 남북관계에 첫 광기를 내고 통일의 좌표를 높이 세운 역사적적기였으며 남북이 분열사상 처음으로 민족공동의 통일원칙에 합의한 특기할 사건이었다.

광주의 한 박사학교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나라를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헌명하게 명도하셨다. 그이께서는 오래동안 마려왔던 남북 북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제시하시어 민족의 대단결과 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었다.》고 격찬 하였다. 인현의 한 제야안사는 어버이수령님께 대한 다함없는 호모와 감사의 마음을 《통일된 민족의 배움을 분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려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실로 애국, 애족, 애민을 필생의 지론으로 삼고 통일을 위해 사신분이었다. 그래서 주석님의 통일대강은 그 그나하나 애국, 애족, 애민의 명안이었고 주석님의 사랑은 두터운 분림의 강박도 꾀고 우리 이남동포들에게 뜨겁게 와닿았던 것이다. 김일성주석님의 한평생 정령 겨레의 통일열망을 한가슴에 안고 통일만을 생각하시며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오셨고 삼천리에 거센 통일의

열풍을 안아오신 위대한 통일령수의 빛나는 한평생이었다. 그러한 김일성주석님이시였기에 생의 마지막순간에 남긴시 필적도 그처럼 바라시던 조국통일을 위한 한철이 아니었던가.》

통일운동단체성원들과 시민들, 진보적인 청년학생들이 참가한 《통일문제를 생각하는 일대》는 통일을 생각하는 한결같은 심정일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사상과 명도, 숭고한 덕망으로 조국통일의 길에 쌓으신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의 기쁨은 우주의 높이로 우뚝 솟아 빛을 뿌리고 있다. 지구상에 우리 민족이 살고 인구가 존재하는 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업적은 영원하며 그 업적과 더불어 주석님은 영생하시었다.》

대구의 한 대학교에서 있는 강연회에서 어느 한 통일운동가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통일유산으로 인정주신 김일성주석님을 이남민들은 영원히 잊지 않겠으며 그분께서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영원불멸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정령 정조과 신앙, 사는 꽃과 처지는 나무 달라도 남북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주재, 뜨거운 민족애를 지니시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께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뜨겁게 간직되어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념원을 받들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해나갈려는 온 겨레의 의지는 날이 갈수록 더욱 굳어져가고 있다.

본사기자 김 향 III

자주사상과 애국애족의 빛나는 결정체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탁월한 자주사상과 열렬한 조국애, 민족애를 지니시고 조국통일의 근본초석을 마련하시였으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우리 민족을 헌명하게 령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애국위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통일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었다. 민족의 운명을 실현하는 길에 안았이 고귀한 업적을 남기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제시하시어 자주통일의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주신 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수령님의 사상리론활동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다른 모든 혁명운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조국통일운동에서도 그 주인이 며 주체인 우리 민족을 중심에 놓고 확고한 주제적판파와 리상으로부터 출발하시어 과학적이며 완성된 조국통일의 근본원칙

을 제시하시었다.

외세에 의해 우리 겨레가 민족분열의 비극을 겪게 된것을 누구보다 가슴애틀하시며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격변하는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폭넓은 북남협상방향을 내놓으시고 북남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을 마련하시였으며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 공동성명을 발표하도록 하시었다.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 공동성명의 발표는 우리 겨레에게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을 마련해주고 조국통일운동은 자주의 궤도에 올려놓아 준 결정적사건이었다.

7.4 공동성명에서 친명된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은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루하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일찌기 위대한 주제사상을 내놓으시고 온 겨레를 민족의 자주적운동체학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힘있게 불려나오시며 조국과 인민애를 불멸의 민족사적공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보내셨던 정세발전의 방향과 통일대강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다.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북남대결을 격화시키는 외세의 종화책자는 언제 가도 조국통일을 이루할 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분열의 근원과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에 관한 주제사상과 과학적인 해명을 기초하시어 우리 민족의 근본리념과 온 겨레의 일치한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밝혀주시었다.

이 불멸의 원칙이야말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신 위대한 자주사상과 숭고한 애국애족의 의지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외세의 지배와 연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것은 민족정신의 공통된 심리이다. 특히 우리 민족은 민족자주정신이 강하고 애국심이 남달라 강렬한 민족이다.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어나가는 우리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정적으로 부합한다. 하기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과 가르침을 심장에 새겨놓고 조국통일 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한사없이 떨쳐나섰다.

조국통일 3대원칙의 발표 이후 우리 민족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사상과 애국애족의 지가 안아온 사본들이다.

우리 겨레는 역사와 현실을 통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자주사상과 애국의 뜻과 의지를 높이 받들어나갈 때 민족의 속원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룩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반동일세력이 제어무리 날뛰어도 필승의 심신을 안고 통일 애국투쟁을 열어나갈 때 북남조국통일위업실현의 전환적국면을 활짝 열어나가게 하는 우리 겨레의 의지는 절대로 꺾일 수 없다.

본사기자 리 성 호

위기를 타돌출을 노린 대결선동 괴뢰패당의 극악한 반공화국인권모략 소동에 무자비한 철추를 내릴 것이다

그 누구의 《도발》을 운운하며 북남대결기운을 고취하는 괴뢰패당의 망둥이 날로 우심해지고 있다.

며칠전 괴뢰군의 주요지휘관들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우두머리들까지 끌어모아 먹찬발언을 벌려대는 괴뢰침략자는 《북이 어떤 도발을 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는 머무니없는 나발을 불어대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고집하였다. 저에는 남조선에서 행한 대결선동 미군총사령관에게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요청하는 추세를 뿌리더니 오늘도 또 출가들을 반공화국도발로 부추기며 대결선동을 제친 것이다. 침략자의 총동맹이 가 살아남 괴뢰군장관 장관 한권구역도는 가스용계도 《북의 도발을 응징》하겠다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하니 분별없이 넘겨졌다.

《북의 도발》이라는 것이 남조선괴뢰들이 입만 터지면 불어대는 판에 박은 나발이지만 그것이 직접 반공화국도발로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다. 괴뢰침략자와 한권구역도가 이번에도 또다시 《도발》이니 저기 하고 썰거리며 북의 대결선동을 부린 것은 출제계대 동족에 대한 북쪽의 적대감에 찬정판기를 불어넣고 남조선의 군사적긴장상태를 더한층 격화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술책이다.

괴뢰침략자가 이번에도 《북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사출시험》 등을 운운하며 《위협》이니, 《도발》이니 하고 고이대지만 사실 미국과 아합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며 북침전쟁도발책동에 광범하는 괴뢰패당은 남을 끌고들 한조파의 체면도 없다.

지난 6월 25일부터 괴뢰보통관들은 조선서해상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합리한 기습타격을 노린 해군과 해병대의 대규모적인 합동상륙훈련을 미천듯이 감행하고 있다. 이런 위험한 공격행위를 우리들의 코앞에서 로골적으로 벌려놓는 자들이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해 괴뢰를 들먹였으니 이 얼마나 썩어빠진 괴뢰들의 《도발》 태령은 그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다.

북남관계가 개선은 고사하고 날로 파국으로 치

닫고있는 것은 바로 남조선침략자를 비롯한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대결망매공이다.

이번에 괴뢰침략자가 우리를 끌고 극단적인 대결망매를 제친것은 저들이 체면 신장한 통치위기가 터져 버리니 위한 참수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괴뢰패당의 반인민적약정을 하여 전염병사태가 더욱 확대되면서 사망률들이 극도의 불안과 공포속에 높아지고 있다. 그 하야 부채무는 보수당에 대한 인민들의 원한과 분노가 치솟고 있다. 최근에는 천천히 여론조사결과와 관련 지지자들은 그의 집권 이래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다. 여야합의로 채택된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괴뢰침략자의 독단적인 거부행위사적국기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지고 있다.

이로 하여 인민의 규판을 깨고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괴뢰패당은 모략적인 《북의 도발》을 또다시 들고나오며 긴장적태도성으로 여론의 이목을 받들어 돌리려고 발악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다. 괴뢰들이 그따위 유치한 놀음을 또 위기를 모면하기에는 그들이 지은 죄악이 너무 크다.

얼마전 괴뢰침략자는 전염병사태와 관련하여 정치인들이 사람들에서 불만과 심리적자극을 주는 발언을 삼가해야 한다고 제법 괴뢰를 들먹였다. 그에 대해 남조선인민들은 전쟁불만을 고조시키는 망발만 쏟아내는 침략자의 입부르 틀어막아 안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민들이 죽든살든 아랑곳없이 외세와 공모하여 동족을 학살하며 북침전쟁도발에만 미쳐몰아가는 괴뢰들이야말로 남조선사회에 깔깔은 불만과 공포를 몰아오는 우환거리, 제앙의 화군이다.

남조선피괴들이 아무리 《위협》이니, 《도발》이니 하며 우리를 끌고들어도 소용이 없다. 조선인민의 도발은 결코 안으로는 민족의 생명과 이익을 해치는 억적부리의 망둥은 스스로 제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처사일뿐이다.

허 영 민

3대원칙은 침략적인 외세를 반대배격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어나가는 우리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정적으로 부합한다. 하기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과 가르침을 심장에 새겨놓고 조국통일 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한사없이 떨쳐나섰다.

조국통일 3대원칙의 발표 이후 우리 민족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사상과 애국애족의 지가 안아온 사본들이다.

우리 겨레는 역사와 현실을 통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자주사상과 애국의 뜻과 의지를 높이 받들어나갈 때 민족의 속원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룩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반동일세력이 제어무리 날뛰어도 필승의 심신을 안고 통일 애국투쟁을 열어나갈 때 북남조국통일위업실현의 전환적국면을 활짝 열어나가게 하는 우리 겨레의 의지는 절대로 꺾일 수 없다.

본사기자 리 성 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의 레오니이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이다.》

어느덧 43년세월이 흘렀다. 7.4 공동성명의 발표로 삼천리강산이 통일에 대한 환희와 락을 띠었다.

7.4 공동성명이 발표된 당시 나는 경기도 포천군에 있는 운현천근정학교 교편이었다. 성명이 발표된다는 예보가 나오자 우리 학교에서도 전제 학생들이 교편들이 무슨 내용일지 하고 긴장과 초조감속에 기다렸다.

드디어 북과 남이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원칙을 합의하고 그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는 것을 알리는 보도가 전해졌 다. 순간 선생님은 일시에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만세 부르던 사람이, 이젠 통일이 되었다고 무릎을 치는 사람, 서로 부둥켜안고 얼굴을 비비는 사람 등 저저마다 감격을 터지며 눈물을

그날의 감격과 환희를 잊을 수 없다

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다. 학생들은 또 그대대로 배우, 강강산으로 수하러행을 가게 되었다고 너무 좋아 어쩔만큼 놀라하였다.

《민족의 앞일에 대용이 되었다. 《통일을 눈앞에 보는것만 같다.》 《김일성동지의 도방과 애국애족의 뜻을 하늘보다 높이다.》

이전에는 수면이 없었던 이 놀라운 현실은 역사적인 7.4 공동성명이 안아온 사본이었다.

그 가슴발들 마음을 목격하면서 나는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달리는 남녘의 뜨거운 민심을 읽을수 있었다. 위대한수령님께서 계시어 민족의 속원인 조국통일은 무엇이 이루어졌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남민중의 슬결을 느낄수 록

램들이 모두 방중을 귀를 기울이고 있어 거기에선 인적이 드물었다. 그러나 온 남남평은 그야말로 통일의 분위기로 세차게 끓어받지 않았다. 남조선인들은 《7.4 공동성명은 새 민족사의 서풍》, 《누구에게나 다 접수할 수 있는 애국애족의 방언》, 《일제식민지하에서 헤매되던 1945년 8월 15일의 감격을

가슴도 벅차올랐다. 세월은 모든 것을 망각의 이기속에 묻어버린 듯할지라도 나는 통일의 비경으로 설레이던 43년전의 그 모든 날들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의 반동일세력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위한 대결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하면서 역사적인 7.4 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 그 실정 강령인 10.4 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그 리행을 거부해나오고 있다.

우리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과 의지를 받들어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이 땅에서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가까이 안아오야말로 것이다.

재민족회동일족친협회 회원 이수 박사 정 규 진

괴뢰패당의 극악한 반공화국인권모략 소동에 무자비한 철추를 내릴 것이다

남조선인권 대책 협회 대변인 담화

지금 1일 괴뢰패당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중상모략하는 《북인권책서 2015》라는 것을 발간하는 놀음을 벌려냈다.

《북인권책서》라는 것은 괴뢰침략자들이 아무런 유엔《북인권사무소》라는 모략기구에서 서술해온 거짓말과 거짓을 섞어서 서술한 것으로서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고자 하는 것은 명백하고도 명백한 사실이다.

민사들의 경악을 자아내는 허위와 기만으로 얼룩진 조작물을 내걸고 감히 그 누구의 《인권침해》에 대해 떠드는 것은 괴뢰패당의 반공화국대결책동에 일찌기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에대착오적인 과대망상증의 발로

제이동포인터네트신문 《인권통신》이 6월 25일 《인종차별, 전쟁제국의 서술(유엔인권사무소)》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같은 23일 미국이 서울에 유엔의 모자를 씌운 《북인권사무소》를 설치하여 갖가지 항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썼다. 조선인민의 사회주의제도도 소중한 인권을 저들의 기준으로 예외적으로 《북인권사무소》를 설치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과대망상증의 발로

괴뢰패당은 절세위인의 헌명 한 평도림에 자주적선언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빛나고 인민이 만민을 누리는 우리 공화국의 위상에 집결한 자들의 단발적 자침이며 투쟁을 격화시켜 늘어난 민심을 탄압할 구실을 마련하고 외세와 아합하여 반공화국살상이상을 이루어보려는 흉악한 속심의 발로이다.

괴뢰패당은 머무니없는 모략 자료를 내뿜으며 동족을 학살하는데 반인민적약정과 파소폭정으로 남조선인민을 세계최악의 인권 불모지,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전락시킨 반인민적배행행위에 대해 돌이켜보고 응당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파소

해 떠들고있는 것이야말로 철면피의 극이었고 정선명자의 너무 리가 없을 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유선》과 조소독제가 되살아나 독기를 내뿜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참혹하게 짓밟고 있다.

민족의 속원인 조국통일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하여 《보안법》을 회화하여 각계층의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 책임을 가하고 있으며 《세월》로써 사람의 정성규율을 요구한다 하여 회색계급자격을 받고 무고한 주민들에게 투쟁투항을 들뜨게 하는 파소적 목적을 이루려는 암흑적대가 바로 남조선이다. 괴뢰패당의 반공화국인권모

락소동은 절세위인의 헌명 한 평도림에 자주적선언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빛나고 인민이 만민을 누리는 우리 공화국의 위상에 집결한 자들의 단발적 자침이며 투쟁을 격화시켜 늘어난 민심을 탄압할 구실을 마련하고 외세와 아합하여 반공화국살상이상을 이루어보려는 흉악한 속심의 발로이다.

괴뢰패당은 머무니없는 모략 자료를 내뿜으며 동족을 학살하는데 반인민적약정과 파소폭정으로 남조선인민을 세계최악의 인권 불모지,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전락시킨 반인민적배행행위에 대해 돌이켜보고 응당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파소



유엔(북인권사무소) 폐쇄하라

조선인민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은 역사적선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여러 나라 정당, 단체 인터넷에 글 게재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5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정당, 단체인 6월 14일과 1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도이칠란트공산당은 《6.15북남공동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6.15 공동선언은 유엔총회에서도 환영받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대강이라고 지적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애족의 내용단에 의하여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프랑스조선친선협회는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마련하여 조국통일시련의 커다란 희망과 전망을 앞당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였다.

같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6.15북남공동선언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하고있는 북남사이의 호상 이해와 관계발전의 추동력이다. 남조선당국은 대미추진정책을 계속 추구하면서 북남관계를 핵문제와 편파시킴으로써,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대강을 해체하려는 의지도 있다.

선언이 리행되지 못하고있는 원인은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책동에 있다.

우리는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5돐을 맞으며 조선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문제점을 현실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미대선언의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해결할것을 주장한다.

합적을 칭송하였다. 같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6.15북남공동선언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하고있는 북남사이의 호상 이해와 관계발전의 추동력이다. 남조선당국은 대미추진정책을 계속 추구하면서 북남관계를 핵문제와 편파시킴으로써,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대강을 해체하려는 의지도 있다.

선언이 리행되지 못하고있는 원인은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책동에 있다.

우리는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5돐을 맞으며 조선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문제점을 현실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미대선언의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해결할것을 주장한다.

선언이 리행되지 못하고있는 원인은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책동에 있다.

우리는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5돐을 맞으며 조선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문제점을 현실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미대선언의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해결할것을 주장한다.

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 한다》를 6월 15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스야의 파스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발표하여 미국과 야합하여 버리는 북침전쟁연습을 중지시킬것을 남조선에 요구하였다.

성명은 남조선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배전현현의 돌격대가 되어 거리의 생명과 안전을 침략자들의 전쟁도발판에 내맡기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5돐에 즈음하여 발표된 성명은 북남관계개선과 전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단합된 힘에 의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세의 간섭을 배격할것을 남조선에 촉구하였다.

또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는 《세계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서면발전에 의한 통일을 실현할것을 주장하였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손잡고 북남관계를 풀어나가느라 아니며 우리의 끝까지 대결하다기 선언자처럼 비참한 길을 가고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있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이 나라의 리아 노보스페르산과 신문 《로써스까야 가제타》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런 프레스TV방송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성명에서 북남사이의 신뢰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성명은 남조선이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것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시비중상을 중지시킬것을 촉구하였다.

이 나라 신문 《이란 메일리》, 인디아의 PTT통신, 인디아-아시아통신, 지 뉴스TV방송, 신문 《타이스트》, 인디아의 AFP 통신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의 요지를 보도하였다.

쿠바의 스페인 라라통신, 방글라데시 《발리사》, 우루과이신문 《라 후엔드》, 에칠트신문 《달 마시아》, 나이지리아 《나이제리언 오브 저버》와 남아프리카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브라질 주체사상연구센터, 도이칠란트 단체인 인터넷홈페이지 등 《조선 북남관계발전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것을 호소》 등의 제목으로 평화정부성명의 전문 또는 요지를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과의 현대성활동을 적극 벌릴것이다

6.25-7.27반미공동투쟁주간 구 바에서 개막

6.25-7.27반미공동투쟁주간 개막식이 6월 22일 쿠바의 아바나에서 진행되었다.

행사 장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정경애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졌다.

또한 우리 나라 기발과 구 바 기발이 드려져있었다.

행사에는 구 바 제인간의 친선협회, 조선통일지지 구 바위원회, 구 바경찰청장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으며 이 나라 주제 우리 나라 특명전담과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었다.

우리 나라 애국가와 구 바국가 연주곡으로 시작된 행사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조선통일지지 구 바위원회 제 1부위원장 후안 호세 레온 베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50년 6월 25일은 미제가 남조선인민들을 무자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한 날이다.

조선의 권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힘입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서슴없이 바쳐왔다.

조선전쟁은 1953년 7월

영국 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조선인민과의 국제적연대성 활동을 계속 벌려놓아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마치도 통일에 관심이 있는듯이 늘어가는 것은 6.15 통일시대를 판사시인 책임에서 벗어나 《세계통일》아상을 실현해보려는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하다.

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며 김정은동지의 조국통일사상과 명도 받들어 북남관계에서 대 전환을 이룩해나가는 조선인민의 의지와 필연함을 주장하였다.

6.15공동선언을 리행하는 길만이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방도로 된다.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문제추진협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신통문개 모시고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5돐에 즈음하여》라는 표제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자》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같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율해

군대안의 단결을 강화할것을 호소

이런대통령 하한 루나가가 최근 한 연설에서 군대안의 단결을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지금 적들이 미사일이나 현대적인 군사장비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이란을 굴복시키려고 획책하고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처하여 이란무장력은 단결력을 보다 강화하고 단단의 전투 준비를 갖추고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나리의 존엄과 명예는 강력한 무장력에 의해서만 담보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경제발전을 위한 협조 강화

서아프리카나라들이 에블라 비루스에 의한 피해를 가지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협조를 강화하고있다.

6월 28일 기네, 리베리아, 시에라레온 등 나라들은 기네의 피라코에서 수뇌자 회의를 열고 지역의 경제발

심각한 돌 부족난

케냐에서 최근 돌부족현상이 나타나고있다.

오래동안 지속된 가뭄로 나이로비에서만도 약 40만명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38°선 기념공원》이라는 것이 있다. 지난 조선전쟁에서 황천객이 된자들을 《향양》하여 세워 《공헌》의 성립자는 놀랍게도 나더러 희생물로 되어 있다. 여기에 석조보물수 없는 문제가 있다. 아는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은 소년, 소녀들, 복잡한 세계를 리해하기에는 아직 이른 철부지들이 어떻게 되어 한 민족의 5천년현통을 끊어놓는 저주로는 부활선을, 70년세월 조선민족을 갈라놓고있는 불행과 고통의 상징인 38°선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에서 미군이 얻은 《권력》로 새겨안고있는것인가. 그 대답은 동심에 그려진 6.25전쟁희생의 단면에서 찾아보아야 할것이다.

—6.25전쟁은 북조선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다. —미군은 남조선에 《공산화》 하려는것을 막았다. —조선반도를 가른 38°선은 전쟁과정에 생겨났다. ...

깨 명주천과 같은 어리둥절한 것은 두말할것없이 교육의 소중한 사명을 제비로 권력에서 내려놓아 《권선》들이 아니라 이들도 한강 송사리에 불과하다. 주범은 진실만을 가르치고 새 세대를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신성한 교단까지 불순한 목적실현의 공간으로 약속하는 미국의 위정자들이다. 침략으로 생겨나고 침략과 약탈로 배를 늘리며 비대한지 이미 미 제국주의의 역사는 미화분 석하려는 미지배층의 책동은 출판본도되는 물론 교육분야에서 르기까지 팽배위하게 벌어지고

북수주의를 고취하는 일본대중보도수단 비난

로스야의무성이 최근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북수주의를 고취하고있는 일본대중보도수단들의 그릇된 처사를 비난하였다.

외무성은 일본의 대중보도수단들이 제2차 세계대전중 70년이 되는 율해에 과거

일본에서 6월 29일 당국의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반대하는 서명자들의 명단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올해초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에는 165만명 이상의 각계 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서명자들은 정부가 《집단지원》행사사용을 비롯한 그릇된 정책을 강행하고있는데 대해 항의하고 국회가 론쟁거리로 되고있는 안전보장관련법안채택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에서 6월 29일 당국의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반대하는 서명자들의 명단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올해초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에는 165만명 이상의 각계 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서명자들은 정부가 《집단지원》행사사용을 비롯한 그릇된 정책을 강행하고있는데 대해 항의하고 국회가 론쟁거리로 되고있는 안전보장관련법안채택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인들 안전보장관련법안 반대

한 기사는 《집권자당면은 집권 자체력을 잃고있다.》고

우리를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에서 6월 29일 당국의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반대하는 서명자들의 명단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올해초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에는 165만명 이상의 각계 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서명자들은 정부가 《집단지원》행사사용을 비롯한 그릇된 정책을 강행하고있는데 대해 항의하고 국회가 론쟁거리로 되고있는 안전보장관련법안채택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에서 6월 29일 당국의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반대하는 서명자들의 명단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올해초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에는 165만명 이상의 각계 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서명자들은 정부가 《집단지원》행사사용을 비롯한 그릇된 정책을 강행하고있는데 대해 항의하고 국회가 론쟁거리로 되고있는 안전보장관련법안채택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날로 강화되는 지역적협조와 교류

단결은 승리의 열쇠이며 협조는 공동의 번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쓰는 쌍무적 및 다부적협조가 다방면적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되고있다.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제안된 분야에서 소규모적으로 시작한 협조를 정치분야뿐만아니라 에네르기, 식량, 금융, 과학, 안전, 국방, 보건, 체육 등 사회생활의 전분야에 걸쳐 확대하고있다.

이런과 인도네시아는 수력발전선건설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란은 앞으로 5년동안 인도네시아에 중수형수력발전소들을 건설해줄것을 약속하였다.

한편 구바와 엘살바도르는 보건의료에서 호상 협력에 관한 문건에 조인하였다.

지역적협조중심적인 아프리칸아라들속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6월 중순 남아프리카에서 제 2차 아프리카개발국가 및

정부는 사회주의가 진행되었다.

남아프리카대통령은 개막연설에서 아프리카가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에서 주도권을 쥐고있다고 하면서 이를 더더욱 새로운 발전의 길에 올려야 한다고 하였다.

54개 아프리카동맹 성원국들의 국가 및 정부수반들이 참가한 회의에서는 16개항목의 권리와장관 제, 부부들의 정치적위해결과 대륙의 자유무역대상실을 위한 협조를 그리고 아프리카동맹의 활동을 위한 새로운 자금원천들을 찾기 위한 제도적장기수립과 관련한 문제들이 의의되었다.

세계의 다국가화 추진되는 속도에 많은 협조국가들이 등장하여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고있다.

브리스가 대표적사례이다.

브라질, 로씨야, 인디아, 남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들로 이루어진 협조는 신형국비적 발리 발전하고있는 경제협력개발을 위주로 구성된 국제경제기구로서 세 세계에 들어와 창설되었다.

브리스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주도의 넓은 국제질서를 마치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를 주장하고있다.

브리스성원국들은 관건적인 국제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보다

권밀하게 조정하고 세계의 다국화와 세계적인 금융 및 무역제도의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있다.

일마침 1차 브리스국회의 단이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연단은 올해 브리스의장국이 사업하게 된 로씨야의 발기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연단에서 브리스성원국 국의원들은 안전보장리사회를 포함하여 유엔의 포괄적인 개혁이 가지는 중요성과의 결과 2차 세계대전에서 이룩된 승리와 결파를 보존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로씨야는 의장국으로 사업하는 기간 브리스의 범위내에서 등 반자관계를 보다 세롭고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금융경제협조를 진행하는 데 기본을 두고 에네르기와 광업, 정보 및 통신기술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하며 교육과 문화, 과학, 보건분야에서의 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단합과 협조를 강화하여 세계 평화와 사회적진보,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여러 나라들의 노력은 앞으로 계속될것이다.

김 수 진

동심까지 어지럽히는 위정자들의 추태

38°선은 결코 미국의 위정자들이 떠벌리는것처럼 조선전쟁의 결과로 되어있것이 아니었다.

1945년 8월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공격전과 이전 조선의 대립전쟁참전으로 일본의 항복이 명백하게 되자 조선반도를 타고앉아 세계적체제를 실현해보려던 미국은 당황 당도하였다.

그때그렇듯이 당시 미제는 조선에 자들의 침략부대를 들이밀 거를 없었다. 일제의 발악적인 저항으로 일본본토에 대한 미제의 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태평양지역 미군의 기본부대는 조선과 멀리 떨어진 필리핀일대에서 서성거리고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좀더 지체하다가 조선땅에 발을 붙일수 있는 기회가 맞아왔다. 우리 민족에 게 있어서 8.15해방이후 분열되었다.

미제가 38°선 이남지역을

제가 목적이 아니라 쏘련군이 조선반도전체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고립 전략적인 결정이었다.》고 미국의 속사를 까뻐했다. 트루먼 자신도 《38°선 조선의 분할선으로 하는것은 한번도 국제적으로 오르지 않았다. 그것은 미국에서 일본의 전쟁기구가 갑작스레 붕괴되었을 때 해결책으로 제안된것이였다.》고 실어놓았다. 이렇듯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는 저주로운 38°선은 미제에 의해 생겨나게 되었다.

결과 한지역으로 잇닿은 우리 국토의 수많은 마을과 산방들, 12개의 강과 284개의 폭로와 6개의 철길이 끊어졌다. 한 마당을 사이에 두고 이웃과 동지가 갈라지고 건너편 친정집에 갔던 안개가 돌아오지 못하는 미국이 맞아왔다. 우리 민족에 게 있어서 8.15해방이후 분열되었다.

미제가 38°선 이남지역을

일본에서 6월 29일 당국의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반대하는 서명자들의 명단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올해초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에는 165만명 이상의 각계 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서명자들은 정부가 《집단지원》행사사용을 비롯한 그릇된 정책을 강행하고있는데 대해 항의하고 국회가 론쟁거리로 되고있는 안전보장관련법안채택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에서 6월 29일 당국의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반대하는 서명자들의 명단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올해초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에는 165만명 이상의 각계 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서명자들은 정부가 《집단지원》행사사용을 비롯한 그릇된 정책을 강행하고있는데 대해 항의하고 국회가 론쟁거리로 되고있는 안전보장관련법안채택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